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동부유럽 권역

## 튀르키예, 견고함 속의 자유로움과 개개인의 특별함

김채우

지난 7월, 튀르키예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겨우 6개월 몸담고 있었을 뿐인데도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먼 길 가서도 우리는 하나라며, 마지막이 아니니 울지 말자는 친구들의 말이 자꾸만 사무쳤다. 각자 다른 국적을 지닌 우리는 이내 서로를 토닥이며 안녕을 고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의 끝자락에 비로소 마침표가 새겨졌다. ‘안녕, 튀르키예’.

애잔하고도 어려웠던 작별 인사가 온전히 끝나고 나니 지난 6개월간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떠올랐다. 운 좋게 입학시험에서 높은 반에 합격해 수업 초행부터 울면서 공부했던 기억, 국무총리 순방 현장 지원을 나갔던 기억, 같은 반 친구의 추천으로 뜬금없이 튀르키예 기업에서 일하게 됐던 기억... 6개월 동안 ‘참 행복했구나’ 싶어 한국행 비행기에서 혼자 생긋, 웃음 지었다.

사실 나의 못 말리는 튀르키예 사랑은 가까운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내가 튀르키예어과를 선택했을 땐 걱정 섞인 목소리도 분명 있었다. ‘이슬람 국가는 위험하지 않냐’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문화를 지닌 국가가 아니다. 튀르키예가 지닌 이슬람 문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튀르키예

의 수도가 ‘당연히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정보의 오류다.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다.)

튀르키예의 경우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추세이다. 몇 년 전까지 현 튀르키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튀르키예식 민주주의’ 정치 방식이 이슬람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사실상 국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튀르키예와 관련된 교안과 논문에서 ‘이슬람교’는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튀르키예인의 생활과 이슬람 교가 얼마나 밀접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튀르키예에서 믿는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이 깃든 극단적 이슬람과는 거리가 멀다.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강제 혼인을 시키는 경우가 없으며 무엇보다 히잡을 강제로 착용하게끔 억압하지 않는다. 세간의 논란인 조혼(早婚, 어린 나이에 하는 혼인) 문화나 명예 살인(名譽殺人,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살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슬람에 대한 특별한 법이나 벌이 없기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튀르키예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튀르키예의 사회 방식은 유럽과 종교는 중앙아시아와 같다.”

실제로 튀르키예에 거주하며 마주했던 이슬람 사회는 굉장히 자유로웠다. 남과 여 구분할 것 없이 평등하게 생활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함께 꿈을 펼쳐 나가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는 것에 제한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성을 그 누구라도 존엄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튀르키예 이슬람 사회의 자유로움’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튀르키예가 독보적으로 독특한 이슬람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다. 비단 튀르키예가 아니더라도 이슬람 사회의 형태는 국가의 전통, 문화, 인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슬람 국가의 부정적인 행태를 제외하고 튀르키예처럼 ‘이슬람교의 정신’만 믿는 국가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견고한 이슬람 사회, 그 속에서도 개개인의 특별함을 갖추고 사는 튀르키예. 이번 기회를 통해 튀르키예를 함께 알아보는 건 어떨까.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현 시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